

≡ 名士칼럼 ≡

요즘 경찰의 고민

—— 이 규 식 (경찰 상임 위원)

최근 들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뜨고 있다.

유전자 감식기법이나 사이버수사 등 과학수사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어 웬만한 강력사건은 거의 해결해 내고 방범활동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열심히 펼치고 있으며 교통사고도 많이 감소되고 있다.

불법 폭력시위도 인내진압의 성과인지 質과 量 모두 국민이 갈망하던 방향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이다. 과거 그 많은 각종 경찰부조리에 관한 메스컴 등의 질타도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동네북처럼 여기저기서 두드리는 곳이 많아 심기가 몹시 괴롭다.

• 수사권과 즉결심판청구권

60년 넘게 경찰의 숙원이던 독자수사권은 조정될 듯 하더니 부처간 협의가 안 되어 정부안도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국회차원의 의원입법 움직임도 잠잠해져 버렸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손 댈 수 없는 성역처럼 고착되는 느낌이다.

이에 더하여 경찰서장의 유일한 사법권이라 할 수 있는 즉결심판청구권도 그 법의 폐지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이라 한다. 연간 수백만 건의 경미사건을 일일이 검사 지휘를 받아 처리할 경우 시간적 낭비는 물론 경찰인력과 행정력의 부담은 너무나 클 것이다.

이는 수사권조정과 동일 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 동안 경찰은 강렬한 반대의견을 밖에서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고 한다.

• 전·의경 제도 폐지

4만6천명의 전·의경제도 폐지 역시 지능, 강력범죄 등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경찰로서는 여간 걱정이 아니다. 거칠고 힘든 시위진압이며 작전 및 일반 방법업무 등 다목적 치안역할을 도맡아 우리사회의 안전관이 되어 왔던 그들이다

이에 대해 대체 인력증원이나 업무량 감축이 고려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국방부에선 해안경계와 내륙지 경계업무 일부까지도 경찰에 이관하려는 강한 움직임이다. 전·의경 대신에 30% 정도의 직업경찰을 증원하고 장비개발과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대처하겠다고는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시위문화 성숙과 소수경찰이 다중을 관리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확립되었을 때 감축합이 합당할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의 급격한 사태가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 경찰대학 폐지론

한국경찰의 제일 큰 브랜드인 경찰대학을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국가예산낭비와 특허제도 등의 명분을 들어 폐지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경찰대학 설립취지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경찰을 발전시킴으로서 국가와 국민이 양질의 치안혜택을 받기 위함이었다.

고등학교 출신자가 평생 동안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전문 경찰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

지고 입문하여 4년간 합숙교육을 받은 경찰대 출신자들이 현재 2,500여명이 배출되어 경찰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취업목적으로 입직한 사람들과는 사고와 행동이 확연히 차별화 되어 있어 경찰행정의 획기적 발전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과거 경찰의 질곡이었던 부정비리 현상도 급감되는 등 경찰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세계 일류경찰로 발돋움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국립경찰대학은 설치목적 이상의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직간접으로 받는 치안혜택을 감안하면 이들의 양성 비용, 연 260억원은 충분히 그 몫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문제와 검시업무 이관

국과수의 소속도 감정업무의 공정성 명분으로 전혀 무관한 행정부장관 직속으로 분리 시켜 놓고 실제

감독은 경찰청이 하게 하는 이원화된 기형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불편과 비능률을 가중 시키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 장비확보 등 책임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급히 바로 잡아야할 과제이다.

변사자 검시업무도 국과수에서 법무부소속의 별도기구인 검시위원회를 만들어 관장토록 하고 검시관의 자격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안 「검시를 행할자의 자격 및 그 직무범

위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중이다.

검시위원회 절차를 다시 거치게 함으로서 검시결과 통보기간이 평균 8일에서 14일로 늘어나게 되는 시간낭비와 비능률로 일선경찰관과 유족 등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시업무는 95%이상의 수요 부서인 동시에 초등수사와 감시업무를 맡은 경찰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과수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경찰청장의 직급

이 나라의 종합치안을 책임진 15만 경찰의 총수 직급이 고작 차관급으로 차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여 다른 부처에서 경찰관련 법안이 차관회의·국무회의에 회부되어 처리 되고 있어도 합리적인 의견제시도 못하고 있다.

조직원 수천명에 불과한 검찰은 차관급이 50명이 넘으며 여타부처와 비교해 보더라도 업무비중과 책임도에 비해 너무도 비현실적인 직급이다.

경찰청장 직급의 장관급 상향조정과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시급한 때이다.

• 약체 경찰은 국가와 국민에 손해

토인비 교수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국가 멸망의 원인은 3분의1이 외침에서 3분의 2가 내부 붕괴에서 온다고 한다.

사회 안정의 주역인 경찰의 힘을 약화 시키는 것은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올 것이기에 걱정이 되는 것이다. 어려운 큰일이 터질 때 마다 언제나 그 현장에서 경찰이 떠맡아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묵묵히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위로와 박수를 보낸다.

부산 警察악단, 이렇게 탄생하다 - ①

- 악단 창설 23주년에 즈음하여 -

—— 김 송 심 (경우문제예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풍류를 즐겨왔다. 그 풍류의 정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맥박 속에도 면면히 이어져왔다. 서구적 음률이 생동하는 생활의식을 고양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라면 우리의 풍류적 심상은 한(恨)과 자조(自嘲)와 자탄(自嘆), 애조(哀弔), 그러면서도 해학적(諧謔的) 풍류(風流)를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마치 각설이가 고달프고 피곤한 구절을 하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일시 묻어둔 채 유유자적하는 장타령조의 흥과 가락이었던 것과 같이...

일찍이 우리 민족은 자연 속에 순응하면서 자연에의 외경(畏敬) 속에 회귀, 조화를 이루며 문화를 형성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그 어느 민족보다 풍부한 음악성을 키워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음악성과 풍류의 기질은 현실을 노래하고 읊으며 즐겨 자위하는 데 그쳤고, 미래지향적 생활의 리듬으로 바꾸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으며 급변하는 현대인의 의식 속에 한낱 회고적 보존에 머물렀다.

끊임없는 자기계발, 그리고 고도의 조직훈련과 협동이 요구되는 현대의 집단체에서 더욱 진취적 일체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Harmony..., 이 Harmony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 필요성이 악대창설의 태동이었다.

40여개의 목·금관악, 그리고 타악의 기기를 통해 폐부로부터湧출하는 고도로 훈련된 절도와 화음, 그 장엄한 취주악의 선율은 더없는 생활의 촉진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선율을 조직화한 악대, 이름하여 부산경찰악대가 고고(呱呱)의 일성을 지르며 태어났다. 정녕 우리경찰악대가 지방경찰로는 처음으로 이곳 항도 부산에 태어난 것이다.

그 웅장하고 오묘한 선율은 공간 가득히 퍼져 나가며 우리들 각박한 가슴마다 파고 들어 까마득하게 찌들은 정서를 일깨우고 나아가 새로운 삶의 의욕을湧솟음치게 하는 기폭제가 된다.

그런데 이 예술적 결정체는 그리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걸작품의 잉태기에서 산고와 탄생에 이르기까지에는 숭한 피땀어린 댓

가를 치러야만 했다.

처음 관악대를 조직해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 “악대”란 한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거리가 먼 분야여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구성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압담하

기만 했다. 관악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의 연구 검토, 인적·물적구성 방법 등 모두가 낯선 어휘들이었으며, 난해한 사안들이었다.

우선 조직 제1의 요건인 대원(요원) 발굴을 위해 시경산하全경찰관과 전·의경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악대유형협자는 불과 17명 내외로 40인조 목표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으며, 치안본부와 각 시도 경찰

국에 협조해 악대 유형협자로 전일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단 2명(서울 1, 충북1)에 불과했다. 또한 악대원을 교육, 지도하고 지휘할 자질을 갖춘 적임자를 대내 경찰관 중에서 찾기도 더더욱 어려웠다.

결국 일반인 전문가를 선발해 교육과 지도를 담당케 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정식기구 승인 이전부터 준비에

돌입했기 때문에 아무런 예산 뒷받침이 없어 대원 숙영시설을 위시해 교육자재, 유니폼, 집기류 등을 준비하는 데 어느 것 하나 순조로운 일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연초에 건의 한 바 있는 악대조직 건의가 치안본부에서 1984년 5월 24일자로 승인, 재가(내무부예규 제532호) 됨으로서 악기류 구입 등을 위한 예산(2,680만원)도 영달돼 사계(斯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수제품을 선정, 악기류 수입상의 공개입찰을 통해 40인조 규모(12계 종류, 40대)의 악기류를 구비하고, 대원 숙영시설과 연습장은 기존건물(기동2중대 상무관)을 개수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악대조직의 외적인 기초골격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제일 큰 난제는 대원 발굴 문제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警 자체 유형협자 17명(경찰 1, 전·의경16)과 他道전일 희망 경찰관 2명, 도합 19명으로 40인조 악대에 필요한 인원 46명(정원:40, 예비대원:6)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숫자였으니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

전·의경 집회시위 현장 체험기

대추리 너른 들판에 누워 밤하늘을 ... ①

—— 일경 강 민 구 (경기 120 전경대)

머리와 턱을 옥죄어 오는 방식으로의 끈에 비지땀을 흘리게 하는 방식 북이 신경에 거슬렸지만 몇 분전의 각오로 눈에 힘을 싣었다.

시위대는 교차로의 가운데를 점거하고 앉아 농성을 벌이다가 투입된 경찰들에게 옥살을 퍼부으며 시비를 걸었다. 이런 마찰이 한두 번은 아니었는지 도열해 있는 진영을 향해 간접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시위대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대학생들은 ‘국가 수호’, ‘미국 빨갱이에게는 주권을 양도하지 말자’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조용하고 평화롭던 대추리의 아침을 흔들어 깨웠다.

상점 문을 박차고 나와 불난 집 구경하듯 마을 주민들은 양 진영을 번갈아 가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 틈에 어른들을 비집고 나온 아이들은 동네 전쟁놀이가 벌어졌다며 우스운 제스처를 취해 보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겐 공포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언론을

통해 듣기로는 미군기지 확장에 관하여 이미 국가차원의 보상절차가 이루어졌고 주민과 국가와의 약속도 지켜지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 논란 감박이며 지켜보는 순박한 주민을 향해 자신들의 입장을 세뇌시키는 시위대들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은 한때만 때려도 뼈가 부러질 듯한 각목을 들고 이리저리 활보하며 스스럼없이 휘둘렀다.

점차 시위대들의 기세가 강해지면 서 평화적 진압을 기본목표로 둔 경찰진영은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갑자기 무너지면서 시위대가 물러갔다.

서로가 이해와 배려를 통해 평화적 시위로 막을 내렸으면 싶었던만 시위대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장기적인 진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에 흘렸는가? 무엇이 미쳤기에 성난 파도 마냥

다. 이렇게 넓은 논이 이 나라에 얼마나 있었든가? 평야사이로 흐르는 내천이며 등성등성 솟아오른 산등성이는 고교시절 지리시간에 배웠던 ‘배산임수’ 지형을 연상케 했다.

둘레둘레 고개를 둘러다가 이내 한 때의 모래폭풍을 발견했다. 필시 아까 보았던 성난 파도였으리라. 이 나라에 있는 예절과 규칙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앞서가는 시위대는 그야말로 무뎌배였다. 텔레비전에서 보아왔던 자들은 시퍼렇게 날이 선 칼 같은 각목이나 무기를 들고 앞을 가로막을 누군가를 향해 휘두를 것이다.

우리는 시위대의 루트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드넓은 평야지대를 횡단하기로 했다. 숨을 고를 새도 없이 ‘평야 횡단’이라는 명령 아래 쫓겨 막대한 힘을 따라 땀에 질질 끌린 채 떠났다.

숨을 헐떡이며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내달렸다. 폭 숙인 고개를 들어보니 시야에 넓고 푸른 논이 펼쳐졌

(계속)

현직 경찰관(전·의경) 원고 모집

급변하는 치안여건 속에서 국민의 안녕과 국가 질서유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난 1970년 창간 이래 40여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찰 및 경우회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한편 전·현직 경찰인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경우신문이 함께 참여하는 신문으로 거듭 나기 위해 현직 경찰관들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 모집 부문 : 詩·수필,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논평을 다룬 時論·提言, 취미나 건강 등에 대한 내용, 기타 경우신문 발행 취지에 적합한 내용.

※ 원고는 경찰 및 경우회 내용을 우선적으로, 채택된 원고에 소정의 원고료 지불

○ 분량 : 2백자 원고지 6매 내외

○ 첨부 : 본인 얼굴사진 1매

○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경우신문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00 - 821

대표전화 (02)2234-1881, FAX (02)2231-7557

경우신문 편집부



경우장학회 창립 30주년

이사장 文鶴東

상임이사 李庸祥

총무이사 鄭載澤

이사 崔在珍

이사 黃鎬恒

이사 朴鍾順

이사 文仁柱

이사 宋龜鎬

이사 閔庚佑

이사 朴玉子

감사 金有平

감사 朴順德

재단법인 경 우 장 학 회